

경계가라



[해제]

<경계가라>는 작자와 창작시기를 알 수 없는 규방가사 작품이다. 규방가사는 여성들에 의하여 창작되고 향유, 전승되어 온 가사 작품을 의미한다. 규방가사의 대표적 유형은 계녀가류, 탄식가류, 화전가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계녀가류에 해당한다. 계녀가류는 독특한 경험이나 느낌을 표현한 실상이라기보다는 유교의 가상적 덕목을 강조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 작품은 모두 15쪽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아래로 죽 이어 쓴 줄글 종서(縱書)의 형태인데, 한 쪽에 위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누어져 줄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쪽은 정연하게 12줄씩 순국문으로 필사되었으나, 가끔 11줄로 필사된 부분이 몇 군데 보인다. 4음보 1행으로 전체 172행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율격은 대체로 3·4와 4·4조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의 전체 구성은 ‘서언(序言)-사구고(事舅姑)-사군자(事君子)-화동생지친(和同生至親)-치산(治産)-행신(行身)-결언(結言)’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전형적이고 고정적인 형식에서 조선조 후기로 가면서 점차 창작자의 개인적 체험과 시집살이의 한탄이 많이 섞여 들어감으로써 문학성이 돋보이는 체험적 계녀가사류가 많이 유포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서언에서 “아히야 드러봐라”라는 발화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전언(傳言)하되 ‘아히’ 즉, 딸과 자신을 동일한 부류로 설정하고 있다. “부모임과 가증은 인정이 혹하며 허물이 만하여도 니리씨려 보건이와 구중이 어렵가난 동싱과 지친이라” 이와 같이 동생이나 지친에 대해서 받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딸이 받게 될 어려움을 걱정하는 태도에서 어머니가 자신과 딸을 동류의 집단으로 묶는 의식의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

[원문]

경계가라

아히야 드러바라 닐일이 신행이라
 친정열 싱각말고 시가로 드러갈제
 닐의마음 엇더하며 너익심스 돌뒤업다
 빅마익 짐을살고 쥬렴을 굿기미여
 문박익 보닐적의 경계할말 무슈하다
 교자문 나갈적의 아미울 나즉하고
 방안니 드러갈제 단정히 안자다가
 흥에석을 차리거더 실치할가 조심하여
 부모임 뵈올적의 공순니 사뵈하고
 숨빅쥬 든난후의 식방우로 드러가서
 ⓧ정히 조심하고 어음올다 ⓧ거던
 ⓧ즈닷 안자다가 부모임계 스단할디
 문안니 드러가서 갓가 안즈실디
 뭇난말이 업사시며 살을말이 업넌니라
 부모임 명을바다 식방으로 드러울지
 문박의 직미하고 공순이 도라와서

동축을 도둑하고 척을보난 일을흐나
삼경사경 지닌후의 침식을 바로하고
조심하고 증을자디 일촉히 시속하고
식벽달 우난소리 화우되용 할거시라
식벽사관 조심하여 문박의 절을하고
단정이 드러가서 문안을 드러올제
평안니 지무신가 첨절이나 업스신가
지성으로 못조웁고 나가라고 분부귀와
아즉마당 그리히고 저역마당 그리하여
조식도리 피할소야 구고임게 정성으로
석달사단 드리적게 수고롭다 말으시면
명연되로 할거시요 숨일이쥬 흐리로다

반송을 불진되 구고식성 조시알아
반찬등스 청염하고 치소등절 정염하다
부모임 병들거던 정성을 더욱하고
노비가 만흐나마 롱막기 두지말고
핑임을 정기하고 탄학을 온순하며
병시을 보와가면 음식을 조로전코
무으며 안질되이 살손으로 부지하고
되소변 반닐적이 방안의 두져말고
굴역보고 가만보와 정성으로 구로하고
어되 안지시며 자서니 알이보와
이불을 정기하고 자리을 편키하라
송나라 진효부난 도적이 바막드니
시모을 쓰려안고 이갓치 착한일을
도망을 안니한니 너허들도 변바드라
아히야 드러바라 쏘한말 잇난이라
다른일 다른일 다바리고 화순키 제일리라
부모임 효양하되 기흔을 자시아라
빅급줄되 업기하고 흔정신정 할거시라
한말도 불순하면 불효가 되난이라
언어을 조심하고 수수이 공경하라

아히야 드러바라 쏘한말 인난이라
가증은 하늘이라 하늘갓치 아라여라

친하다 아당말고 미접다 방심말아
한방의 먹지말고 한히예 거지말아
니외을 구별하라 옛거릭 인난이라
저구난 금슈로다 갓가이 안니하고
언지난 초목이라 나지로 풀이거던
하물며 스람이야 분별이 업살손가
그거릭 밧철가라 그안히 정심이고
밧가 마조안즈 손갓치 디접하니
천영도 하련이와 공경을 지출손가
확업을 조기하여 닉티치 마라셔라
침석이 고흭하여 음난기 마라셔라
집안니 불화하면 안기갓치 되난이라
안으로 만흔일을 밧그로 하난일을
밧그로 미지말고 안으로 간니말라
이룬이 곡중커던 황공이 감슈하고
가중이 우중커던 우시며성 디답하라
우시며 디답하면 공경이 부족하다
부부간 정이야 화한밧기 업난이라
어번니 씨긴일을 신타고 하지말고
어면니 말인일을 써우고 듯지말라
부모임 우중커던 업드려 감슈하고
아무리 울흐나마 발명을 밧비마라
발명을 발니하 도분 니난이라
스시을 보이깃면 노기가 풀인후의
조용이 나와안즈 기기이 발명하면
부모임 우시시며 용서을 하오리라
아히야 드러바라 쏘한말 인난이라
부모임과 가중은 인정이 혹하며
히물이 만하여도 니리씨려 보건이와
구중의 어렵가난 동싱과 지친이라
지물을 스스하여 등싱이 불화하고
언어을 잘못하면 지친의 불목하면
그안이 두리오면 그안이 조심인가
일척도 근어닉여 동싱다 갓치업고
일듯기 갈나닉여 동싱다 갓지업고
일호도 스스말라 불화가 치운이라
지물은 부운일드 골육이 웃듬이라
지친은 우익이라 우익업서 어이소리

무스이 잇실던 남보듯 하건이와
급한일 당하거던 우익받기 엄난이라
빈부을 시지말고 엽안을 보와가면
의복을 빌일적의 말업시 니여주고
음식을 노닐적의 아히야 드러바라
두가지로 하자말고 쏘한말 인난이라
봉지스적 빈각의 부인의 큰일이라
괴일을 당하거던 각별이 조심하여
의복을 가라입고 방당을 채소하고
저슈을 정키하고 현화을 절금하고
그제미을 씌을적의 히도록 다시씌고
직물을 씨을적의 뒤업시 다시씩고
우숨을 크기말라 추미가 썩난이라
비지을 발니마라 문지가 나난니라
종들리 히여서도 비바람 업시하고
제췌을 말키하고 귀전정 시키고고
가족키 안춧다가 횡스을 일족하고
달우괴을 고딤하고 음복을 하올적의
음식을 고루노니 원망게 하여서라
봉지스도 하거니와 접빈각을 잘하여라
손임이 오시거던 청엽을 더욱하여
이우직 기시나마 업다고 핑기말고
소리를 더욱하여 의당의 듯기마라
반상을 손손하여 종만맛기 두지말고
반찬을 노을적의 제췌을 아라놋코
슈절을 노을적의 나기 늦지말라
이전의 농연강이 머리을 버져닉여
손임을 뒤접할지 이갓치 할거시라
손임이 자시다가 음식이 불절면
췌인이 무릇하고 엄난흥이 나난이라
아히야 드러바라 쏘한말 잇난이라
자식을 효양하면 후사이 음이라
슈턱을 하올적의 각별이 조심하여
음성을 쓰지말고 악식을 보지말며
괴울괴 씨지말고 틀이시 늣지말고
자식을 나으시며 문방의 어마임은
문왕을 빅흐실제 얼굴이 단정하고
종면이 다니니라

숨스시 덕온후의 지각이 들거시라
이갓치 하였시니 변바듬즉 활거시라
명쥬을 입지말고 쇠소을 노키마라
장난을 절금하고 외식을 존절하여
씨근엄식 쥬지말고 상한고기 절금하고
괴라고 안을바다 베투업시 하지말고
노밋다고 아을바다 정산을키 마라셔라
링자의 엄만임은 링즈을 꺾우실제
가기를 셔변옴겨 학구썸티 술으시고
이우릭듯 잡듯잡겨왈 너며꺾나 쏘그시고
웃로혀 후회되여 사다가 먹이시니
너도일을 호축하여 쏘기지 마라셔라
아히야 드러바라 쏘한말 잇난이라
노비난 슈족이라 슈족업시 업니스라
더외의 노즈지여 치외의 부얼드려
송전을 보양하고 송전을 춘양하니
그아니 기희하며 그아니 불합할가
제류은하 고가지라 동분은 씨지마라
쑤지도 악은말가 덕리나마 당징말아
나마는 종이거던 어룬으로 덕점하고
나절문 종이거던 자식으로 리너여라
스스이 지니하면 심복이 덕난이라
야의야 드러바라 쏘한말 잇난이라
지가도 하련이와 치슨을 잘하여라
곡석이 만흐나마 헛치기 하지말며
도둑이 만흐나마 옷칠이 하지말며
현이복 거와입고 잡음식 먹어셔라
집안을 자조썸어 문지가 안기말며
괴명을 아라노와 달기가 썸기마라
이웃집 왕닉홀지 부름을 씨고가고
급한일 아니거던 담으로 왕닉말고
남의집 가거덜낭 더욱조심 하여셔라
우숨을 크기하여 이부리 나기말아
웃기셜 별기하여 속웃설 나기말아
남의말 전이말고 남의잉닉 닉지말고
닌물을 전농말고 양반을 고하마라
부즈을 흥선말고 유제규식 마라셔라
아히야 드러바라 쏘한말 잇난이라

시뻘을 처음가서 조심이 만컨만난
시절이 오리지면 턱만키 쇠은이라
처음의 가진마음 늘도록 변치말아
이글의 잇난말이 뒤강을 기록하며
시정의 단하괴로 잇척을 열지말며
치외율이 경기하니 흥신쳐스 유지하고
시시로 닉여보면 부모임켜 귀하여라

[현대역]

경계가라

아이야 들어봐라 내일이 신행¹이라
친정을 생각 말고 시가²로 들어 갈 때
내의 마음 어찌하며 너의 심사 둘 데 없다
백마³에 짐을 실고 주령⁴을 굳게 매어
문밖에 보낼 적의 경계할 말 무수하다⁵
교자문 나갈 적에 아매울 나즉하고
방안에 들어 갈 때 단정히 앉았다가
행예석을 차리거던 싫어할까 조심하여
부모님 뵈올 적에 공손이 사배⁶하고
삼백주 든난 후에⁷ 새방으로 들어가서
⊗정히 조심하고 어음올다 ⊗거던
⊗자닷 앉았다가 부모님께 사단할 때
문안에 들어가서 가까이 앉았을 때
묻는 말이 없으시며 살을 말이 없나니라
부모님 명을 받아 새방으로 들어올지
문밖에 재매하고 공손이 돌아와서
등축⁸을 도둑하고 책을 보는 일을 하나
삼경사경⁹ 지낸 후에 침식¹⁰을 바로하고
조심하고 잠을 자되 일찍이 시속하고
새벽달 우는소리 화우대용 할 것이라
새벽사관 조심하여 문밖에 절을 하고
단정히 들어가서 문안을 드려올 때
평안히 주무신가 침절이나 없으신가
지성으로 묻자웁고 나가라고 분부기와
아침마당 그리하고 저녁마당 그리하여
자식도리 피할소냐 구고님께¹¹ 정성으로
석달 사단 드릴 적에 수고롭다 말하시면
명년¹²대로 할 것이요 삼일이주 하리로다

반상¹³을 불진데 구고식성 자시알아¹⁴
반찬등사 정령¹⁵하고 채소등절 정령하다
부모님 병들거든 정성을 더욱하고

노비가 많으나마 통막기 두지말고
팽님을 정리하고 탄학을 온순하며
병세를 보와가면 음식을 자로전코
물으며 앓을 때에 살손16으로 부지하고17
대소변 반 널 적에 방안의 두지말고
굴역보고 가만보와 정성으로 구로하고18
어데 앉으시며 자세히 알아보와
이불을 정리하고 자리를 편키하라19
송나라 진효부는 도적이 밤에 드니
시모20를 끌어안고 이같이 착한 일을
도망을 아니하니 너희들도 본받으라
아이야 들어봐라 또 한말 있나니라
다른 일 다른 일 다 버리고 화순21키 제일이라
부모님 효양22하데 기한을 자세히 알아
배급 줄 때 없기하고 혼정신정 할 것이라
한 말도 불순23하면 불효가 되느니라
언어24를 조심하고 사사이 공경25하라

아이야 들어봐라또 한 말 있나니라
가장은 하늘이라 하늘같이 알았어라
친하다 아당말고26 미접다 방심마라
한방에 먹지 말고 한 해27에 걸지마라
내외28를 구별하라 옛 거래 있나니라
저 구29는 금수30로다 가까이 아니하고
언지난 초목이라 낮으로 풀리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분별이 없을손가
그거래 발을 갈아 그 안에 정심이고
발가 마주앉아 손같이 대접하니
청렴도 하련이와 공경을 지할손가
확업31을 조기하여 나태치 32 말아서라
침석33이 고혹하여34 음란기35 말아서라
집안이 불화하면 안개같이 되느니라
안으로 많은 일을 밖으로 하는 일을
밖으로 미지말고36 안으로 간니말라37
어른이 꾸중커든 황공히38 감수하고39
가장이 꾸중커든 웃으면서 대답하라
웃으며 대답하면 공경이 부족하다

부부간 정이야 화한받기 없느니라
아버님 시킨 일을 싫다고 하지말고
어머님 말린 일을 싸우고 듣지마라
부모님 꾸중커던 업드려 감수하고
아무리 울흐나마 발명을 바빠마라
발명을 발니하 도분 니난이라
사시를 보이기면 노기40가 풀린 후에
조용히 나와 앉아 개개이 발명하면
부모님 웃으시며 용서를 하오리라
아이야 들어봐라 또 한말 있나니라
부모님과 가장은 인정이 흑하며
물이 많하여도 내리쓰려 보거니와
그중에 어렵기는 동생과 지친41이라
재물을 사사하여 동생이 불화하고
언어를 잘못하면 지친의 불목하면42
그 아니 두려우면 그 아니 조심인가
일척도 끊어내어 동생과 같이업고
일뎡기43 갈라내어 동생과 같이업고
일호도 사사말라 불화가 치운이라
재물은 부운44일다 골육45이
으뜸이라
지친은 우익46이라 우익 없어 어이 살리
무사히 있을 때는 남 보듯 하거니와
급한 일 당하거든 우익밖에 없나니라
빈부를 시지말고47 옆 안을 보와가면
의복을 빌릴 적의 말없이 내어주고
음식을 노낼적에48 아이야 들어봐라
두 가지로 하자말고 또 한말 있나니라
봉지사적 빈객의 부인의 큰일이라
그 일을 당하거든 각별이 조심하여
의복을 갈아입고 방당49을 채소50하고
저수를 정키하고51 현화52를 절금53하고
그 재미54를 싹을55 적의 희도록 다시 씻고
제물을 씻을 적에 대없이56 다시 씻고
웃음을 크게 마라 추미57가 되느니라
비질을 바빠 마라 먼지가 나느니라
종들이 해어서도 매바람58 없이하고
제주59를 맑게 하고 지전정 시키고고

가족이 앉았다가 행사를 일찍하고
달이기울 고대하고 음복60을 하올 적에
음식을 고루노니61 원망게 하였어라
봉지사도 하거니와 접빈객62을 잘 하여라
손님이 오시거든 청엽63을 더욱하여
이웃에 기시나마 없다고 핑계 말고
소래를 더욱하여 의당의 듣게 마라
반상을 손손하여 종만 맡겨 두지 말고
반찬을 놓을 적의 제주를 알아놓고
수저를 놓을 적에 낮게 놓지말라
이전의 농연강이 머리를 베어내어
손님을 대접할지 이같이 할 것이라
손님이 자시다가64 음식이 불결면65
주인이 무릇하고 없는 흥이 나느니라
아이야 들어봐라 또 한말 있나니라
자식을 효양하면 후사이 음이라
수태66를 하올 적의 각별67이 조심하여
음성68을 듣지말고 악새69를 보지말며
기울게 서지 말고 틀리게 눕지 말고
자식을 낳으시며 문방의 어머니는
문왕을 뵈오실 때 얼굴이 단정하고
종면이 다니니라
삼사시 되온 후에 지각70이 들 것이라
이같이 하였으니 본받음직 할 것이라
명주를 입지 말고 쇠소를 놓지 마라
장난을 절금하고 외식을 존절71하여
식은음식 주지말고 상한고기 절금하고
괴타고 안을 받아 버릇없이 하지말고
밋다고 아를 받아 정신없게 마라서라
맹자72의 어머니는 맹자를 기르실 때
가기73를 세 번 옮겨 학구74곁에 살으시고
이웃에 듯잡듯잡겨왈 너머길러 속으시고
도로혀 후회되어 사다가 먹이시니
너도 일을 호족하여 속이지 마라서라
아이야 들어봐라 또 한말 있나니라
노비는 수족75이라 수족없이 어찌살아
더위에 노자지어 추위에 부얼드려
송전76을 보양하고77 송전을 춘양하니78

그 아니 기해하며 그 아니 불합할가
제류은하 고가지라 동분은 쓰지마라
꾸지도 악은말가 대리나마 당징말아
남아는 종이거든 어른으로 대접하고
나젊은 종이거든 자식으로 리너여라
사사이 지니하면 심복이 되느니라
아이야 들어봐라 또 한말 있나니라
지가79도 하련이와 치산80을 잘 하여라
곡석81이 많으나마 헛치기 하지말며
도백이 많으나마 옷칠이 하지말며
현이복 거와입고82 잡음식 먹어서라
집안을 자주 쓸어 먼지가 앉지말며
기명을 알아 놓아 달개가83 깨게 마라
이웃집 왕래할지 무름84을 쓰고가고
급한 일 아니거든 담으로 왕래말고
남의 집 가거들랑 더욱조심 하여서라
웃음을 크게하여 이뿌리 나게 말아
웃길을 벌게하여 속웃을 나게 말아
남의 말 전이말고85 남의흉내 내지 말고
인물을 전농말고86 양반을 고하마라87
부자를 흥선88말고 유제구색 마라서라
아이야 들어봐라 또 한말 있나니라
시덕을 처음가서 조심이 많건마는
시절이 오래지면 태만키 쇠은이라89
처음에 가진 마음 늙도록 변치마라
이글의 있는 말이 대강을 기록하며
시정에 단하기로 이책을 얼지말며
치외율이 경계하니 행신처사 유지하고
시시로 내어보면 부모님께 귀하여라

[각주]

- 1) 신행(新行) : 혼행(婚行)이라고 함. 혼인할 때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감.
- 2) 시가(媿家) : 시집. 시부모가 사는 집. 또는 남편의 집안. 구가(舅家).
- 3) 백마(白馬) : 털빛이 흰 말.
- 4) 주렴(珠簾) : 구슬 따위를 꿰어 만든 발.
- 5) 무수(無數)하다 : 헤아릴 수 없다.
- 6) 사배(四拜) : 네 번 절함. 또는 그런 절.
- 7) 든난 후에 : 들고 난 뒤에.
- 8) 등촉(燈燭) : 등잔 불빛.
- 9) 삼경사경(三更四更) : 삼경은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셋째 부분.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임. 사경은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넷째 부분.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임.
- 10) 침식(寢食) : 잠자는 일과 먹는 일.
- 11) 구고(舅姑)님께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 12) 명년(明年) : 올해의 다음. '내년(來年)', '다음 해'로 순화.
- 13) 반상 : 격식을 갖추어 차린 밥상. 밥 · 국 · 김치 · 장류 · 조치류를 기본으로 하고, 속채 · 생채 · 구이 · 조림 · 전 · 마른찬 · 회 따위의 반찬의 수효에 따라 3첩 · 5첩 · 7첩 · 9첩 · 12첩 반상의 구별이 있음. 왕의 수라상은 12첩이었음.
- 14) 자시알아 : 자세히 알아.
- 15) 정렴(貞廉) : 곧고 깨끗함.
- 16) 살손 : 어떤 일을 할 때 연장이나 다른 물건을 쓰지 않고 직접 대서 만지는 손.
- 17) 부지(扶持)하고 : 상당히 어렵게 보존하거나 유지하여 나감.
- 18) 구로(劬勞)하고 : 자식을 낳아서 기르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씀.
- 19) 편키하라 : 편하게 하라.
- 20) 시모(媿母) : 시어머니.
- 21) 화순(和順) : 온화하고 양순함.
- 22) 효양(孝養) : 아버이를 효성으로 봉양함.
- 23) 불순(不順) : 공손하지 아니함.
- 24) 언어(言語) :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
- 25) 공경(恭敬) : 공손히 받들어 모심.
- 26) 아당(阿黨)말고 :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환심을 사려고 다람게 아첨하지 말고.
- 27) 한해 : 한 화임. 같은 헛대.
- 28) 내외 : 남편과 아내.
- 29) 구 : 비둘기. 비둘기목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멧비둘기, 염주비둘기, 흥비둘기, 흑비둘기 따위의 여러 종류가 있음. 야생종과 집비둘기로 크게 나누는데 야생종은 대부분 텃새임. 부리가 짧고 다리도 가늘고 짧으며 날개가 큰 편임. 식도의 큰 모이주머니에 먹이를 저장하고 그 벽에서 암죽을 분비하여 새끼에게 먹임. 성질이 온순하여 길들이기 쉽고 귀소성을 이용하여 통신에 사용함. 평화를 상징하는 새임.

- 30) 금수(禽獸) : 날짐승과 길짐승이라는 뜻으로, 모든 짐승을 이르는 말.
- 31) 학업 : 학업.
- 32) 나태치 : 나태하게.
- 33) 침석(寢席) : 잠자리.
- 34) 고혹(蠱惑)하여 : 지나치게 사랑하여.
- 35) 음란(淫亂)기 : 음란하게.
- 36) 미지말고 : 미루지 말고.
- 37) 간니말라 : 간여(干與)말라. 관계하여 참견하지 말라.
- 38) 황공(惶恐)히 : 위엄이나 지위 따위에 놀리어 두렵다.
- 39) 감수(甘受)하고 : 책망이나 괴로움 따위를 달갑게 받아들이고.
- 40) 노기(怒氣) : 성난 얼굴빛. 또는 그런 기색이나 기세.
- 41) 지친(至親) : 매우 친함.
- 42) 불목(不睦)하면 :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면.
- 43) 일뚝기 : 일두속(一斗粟)임. 한 톨의 좁쌀.
- 44) 부운(浮雲) : 뜬구름.
- 45) 골육(骨肉) : 뼈와 살을 아울러 이르는 말. 부자, 형제 등의 육친(肉親). 골육지친.
- 46) 우익(右翼) : 새나 비행기 따위의 오른쪽 날개.
- 47) 시지말고 : 재지 말고.
- 48) 노닐적에 : 나눌 적에.
- 49) 방당(房堂) : 방과 사당.
- 50) 쇄소(刷掃) : 쓸고 닦아 깨끗이 함.
- 51) 정키하고 : 바르게 하고.
- 52) 현화 : 현화(喧譁)임. 시끄럽게 지껄이며 떠들. 잡담.
- 53) 절금(切禁) : 엄금(嚴禁). 금지함.
- 54) 제미(祭米) : 제사에 사용할 쌀.
- 55) 싹을 : 씻을.
- 56) 대없이 : 티 없이.
- 57) 추미(皺眉) : 눈썹을 찡그림. 또는 그 눈썹.
- 58) 매바람 : 매로 침.
- 59) 제주(祭酒) : 제사에 쓰는 술.
- 60) 음복(飮福) :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제사에 쓴 음식을 나누어 먹음.
- 61) 고루노니 : 골고루 나누어.
- 62) 접빈객(接賓客) :接客(接客). 손님을 접대함.
- 63) 청엽(靑葉) : 푸른 잎.
- 64) 자시다가 : 드시다가.
- 65) 불결면 : 불결(不潔)하면.
- 66) 수태(受胎) : 아이를 뱃. 또는 새끼를 뱃. ‘새끼 배기’, ‘아이 배기’로 순화.
- 67) 각별(各別) :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따위가 유달리 특별함.

- 68) 음성(淫聲) : 음탕한 소리.
- 69) 악색 : 악색(惡色)임. 좋지 않은 볼거리.
- 70) 지각(知覺) : 철이 들.
- 71) 존절(尊節) : 예절을 존중함.
- 72) 맹자(孟子) :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B.C.372~B.C.289). 자는 자여(子輿)·자거(子車). 공자의 인(仁) 사상을 발전시켜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으며, 인의의 정치를 권하였다. 유학의 정통으로 숭앙되며, ‘아성(亞聖)’이라 불림.
- 73) 가기(家基) : 집터.
- 74) 학구 : 학교(學校).
- 75) 수족(手足) : 손발.
- 76) 송전(松田) : 솔밭.
- 77) 보양(保養)하고 : 잘 보호하여 기르고.
- 78) 춘양(春陽)하니 : 봄볕이 드니.
- 79) 지가(支家) : 종가에서 분가하여 나간 집.
- 80) 치산(治産) : 집안 살림살이를 잘 돌보고 다스림.
- 81) 곡석 : ‘곡식(穀食)’의 방언(강원, 경상, 전남).
- 82) 현이복 거와입고 : 현 의복 기워 입고.
- 83) 달개가 : 닭과 개가.
- 84) 무름 : 부녀자들이 바깥을 출입할 때 머리위를 덮고 두 손으로 얼굴 부분을 가리는 윗옷의 일종.
- 85) 전이말고 : 전하지 말고.
- 86) 전농말고 : 평론(評論)말고.
- 87) 고하(高下)마라 : 높다 낮다하지 말고.
- 88) 흠선(欽羨) : 부러워.
- 89) 쇠은이라 : 쉬우니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